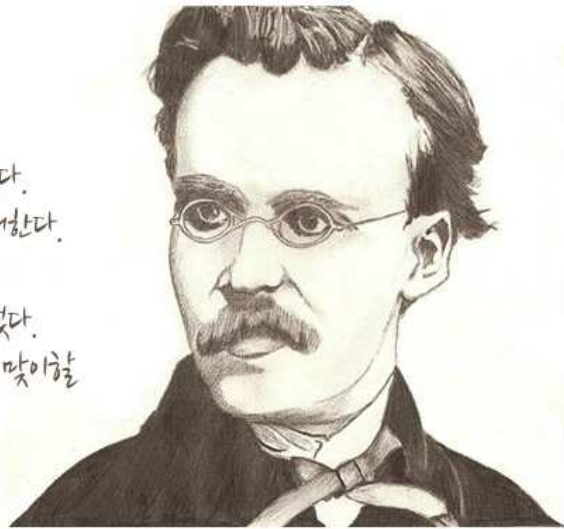


칠암도서관과 인제대학이 함께하는 “인문 예술 산책” 네번째 이야기

## <니체, 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하였다> 운영 안내

니체는 변화가 되어  
푸석푸석한 무덤을 깨부수겠다고 했다.  
무덤덤한 삶 위에 내리칠 번개를 기대한다.  
니체는 그러나  
머지않아 동녘이 밝아올 것이라고 했다.  
그릇된 정신적 유산을 청산한 인간이 맞이할  
새 아침이다.

Nietzsche



**일시** 2016. 6. 28.(화) 19:00 ~ 21:00

**장소** 칠암도서관 3층 시청각실

**대상** 관심있는 성인 30명

**강사** 하상필(인제대학교 교양학부 학부장)

**내용** 당대에 이해받지 못했지만 현대의 철학자들이 가장 큰 감화를 받았노라고 고백하곤 하는 니체를, 니체의 책 <차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>에 나오는 주옥같은 잠언들을 통해 만나 보는 시간

**신청** 2016. 6. 7.(화)부터 선착순 마감  
3층 사무실 방문 및 전화(☎330-4593)